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세례자 요한을 닮는 삶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이 붙잡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과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 태중에서부터 예언자로 간택되어 예수님께 물로써 세례를 주신 분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며 어떤 두려움 없이 떳떳이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 산골 사람들이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저자는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 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수도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흠모하는 인물이라 합니다. 왜

---

나하면 세례자 요한도 그 당시 사막에서 수도 공동체처럼 오랫동안 기도와 단식으로 생활하였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들은 겸손한 사람의 됴됨이가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내면으로는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스럽게 행동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의식 중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고집과 교만을 통해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럴때 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어릴 때부터 자라던 곳, 즉 광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광야는 풀 한포기 자라나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귀 기울이고 거친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 강인한 생활력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가치관 보다, 있는 그대로에서 참된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이 설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인처럼 겸손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자아를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옥산 본당 윤정엽 세례자 요한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기 위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삶으로써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 드릴 수 있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481번 ‘요르단 강에서’

### 본기도

† 하느님, 복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하느님 백성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영신의 기쁨을 주시고, 모든 신자의 마음을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1독서 : 이사야서 49장 1절 -6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당신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하기 위해 예언자를 부르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묵 상 :** 예언자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손길로 성장했음을 깊이 깨달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화답송 :**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제2독서 : 사도행전 13장 22절-26절

**안 내 :** 요한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묵 상 :** 바오로는 구원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어 당신 뜻을 알리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요한을 선택하시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장 57절-66절.80절

---

**강 론** : ‘세레자 요한을 닮는 삶’(1-2쪽)

**예물준비성가** : 214번 ‘주께 드리네’

**영성체성가**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서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어  
만물이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선조들의 역사 속에 오시어  
그들 삶의 곳곳에 당신이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침묵>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로  
사람들은 구세주와 함께 걸어갈  
영혼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침묵>

요한은 겸손의 길을 걸어간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작은 존재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37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58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알 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안동 - 6월 30일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6월 25일 7월 2일 9일 16일  
함창 본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먹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려”
- 일시 : 6월 24일(주일) 14:00~17: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당일 납부)

### ■ 안동교구 남북평화 정착 기원 공연 및 미사

- 1부 : 평양 예술 공연
- 2부 : 미사(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일시 : 6월 25일(월) 19:30
- 장소 : 안동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주관 :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 ■ 전례봉사자 교육

- 일시 : 6월 30일(토) 10:30-16:00
- 장소 : 가톨릭 상지대학교 두봉관
- 대상 : 각 본당 전례봉사자 전체
- 참가비 : 1인 10,000원

### ■ 제23회 농민주일 기념 특강

- 제목 :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GMO 상용화와 농업 밥상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문경지구 7월 6일(금) 19:30 모전동 성당  
북부지구 7월 13일(금) 19:30 휴천동 성당
- 강사 : 김은진 교수(원광대)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24일(성 요한 세례자 탄생 축일) : 송현동 본당

### ■ 6월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6월 25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최운식 아오스딩(의정부 교구)

### ■ 영덕 출신 예수회 새 사제 첫 미사

- 일시 : 7월 1일(주일) 10:30
- 장소 : 영덕 성당
- 새사제 : 김주찬 알베르토 신부

###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7월 16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시-8월12일(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 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2018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 평화의 발걸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6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 우리 앞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 겹쳐 있음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겨우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쟁의 위기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다다랐는데, 새해 들어 기적과도 같이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과 더불어 상상조차 어려웠던 북미 간의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강조하였듯이, 이제 대결과 갈등으로 이어진 긴장과 불안의 65년, 그 비정상적 정전 체제가 끝을 맺고, 종전 선언과 더불어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분단은 죄의 결과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의 단절’인 분단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73년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듯, 분단 체제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 하며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며 지내 왔습니다. 또한 이념 갈등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지역과 세대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로 말미암은 희생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악의 세력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 악함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화해의 직분

바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의 결과인 ‘관계의 단절’을 이겨 내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 곧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려 오셨다고 말합니다(로마 5,10-11; 에페 2,16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

---

원받은 우리는 모두 그 화해의 직분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2코린 5,18).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였듯이 갈라진 세상 안에서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한 일치.’ 이는 우리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라고 하신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남북으로 갈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 새로운 길

한반도가 분쟁으로 말미암은 위험과 불안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평화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북미 정상 회담 이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종전 선언으로 65년의 정전 체제를 끝내고,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통한 새로운 상생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에페 2,14).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함께해 주십니다(마태 18,20 참조). 지금까지 함께 바치는 기도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왔듯이, 평화를 향한 이 조심스러운 여정을 공동체 기도로써 함께해 나갑시다.

교우 여러분! 매일 저녁 9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주모경을 바쳐 주십시오. 우리 주교들도 사제들과 함께 축복의 기도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콜로 3,15).

2018년 6월 2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 기 현 주교



## 선택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장을 보려고 마트에 들렀다. 정육코너에 들러 갈비를 사려다 등심을 세일한다니 마음이 흔들렸다. 갈등하다 결국 갈비를 택했다. 신선한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 앞에서도 무엇을 살까 한참을 망설인다. 식품은 그래도 고민이 덜하다. 오랫동안 쓰는 전자제품을 살 때는 성능과 가격, 제조사와 AS까지 따져보고 신중을 기한다.

인생은 Birth(B)와 Death(D)사이의 Choice(C)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반찬을 무얼 해먹을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부터 시작하여 학교, 전공, 직업, 결혼, 종교 등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결정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완성한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부모나 성씨, 국적은 타고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숙명처럼 순종하며 산다. 신체적 조건이나 성별, 혈액형 등 갖가지 유전자도 선택할 수 없다. 누구나 수려한 외모와 건강한 유전자, 부유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만 선택권이 없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하고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에 선택의 여지없이 불행하게 태어난 이들의 성공담이 널리 회자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셔널(파나소닉)로 알려진 마쓰시타 전기를 창업한 일본의 기업가이자 세계적인 부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불행한 운명을 노력으로 바꾸었다. 병약한 몸으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생계를 위해 전기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정직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뛰어난 고노스케에게 사장은 회사를 물려주었고 그 이후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안고 태어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명언을 남겼다. “오늘이 있도록 하늘은 나를 사랑하여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 병약한 몸과 가난과 무지이다. 병약하게 태어나 건강을 잘 관리하였기에 94세까지 살았고, 가난을 주었기에 돈을 소중히 여겨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으며, 배우지 못했으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대하여 배운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을 준 하늘에 감사한다.”라고. 세상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반 컵의 물을 보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아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나 오복을 타고나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또 공평한 것 같다. 좋은 것만 있지도 않고 나쁜 것만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고나는 복은 반 컵의 물과 같다.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순응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값진 삶이라.

지난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도 있었지만 흐뭇할 때도 많았다. 생애 가장 잘한 선택이 종교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 자신의 의지대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로 속을 뒤집어 보일 수 없을 때도 있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다. 하느님은 변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자가 되고 늘 든든한 백이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나와 달리 남편은 미신을 많이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세존단지 신앙에서 늦게나마 하느님을 알게 된 남편은 모든 선택 중 종교선택이 가장 탁월했다며 내게 고마워한다.